

원광대 학교기업 원네이처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 선정

학교기업 중 유일... 3년 인증효력 연 4회 이상 무료 진로체험 프로그램 제공

원광대학교 학교기업 원네이처가 교육부 및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관하는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으로 선정됐다.

올해 1차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으로 중앙부처 산하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대학 및 학교, 기업, 청소년단체, 민간단체 등 총 263개가 선정된 가운데 학교기업으로는 유일하게 원광대 원네이처가 포함됐다.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제는 진로체험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기관의 진로체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인증 신청 기관을 대상으로 서면심사와 현장실사, 인증심사단 심사, 인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한다.

특히 선정 기관은 교육부 장관으로

부터 인증서를 받고, 3년의 인증효력 기간에 인증마크 사용 권한을 가지며, 진로체험지원 전산망 '꿈길'(www.ggoomgil.go.kr) 홈페이지에 인증사항 탑재, 우수프로그램 홍보, 진로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컨설팅 등 지원을 받는다.

또한, 인증 유효기간 만료 전에 실적을 토대로 재심사를 거쳐 인증효력을 갱신할 수도 있으며, 인증기관은 학생들에게 연간 4회 이상 의무적으로 무료 진로체험 프로그램들을 제공한다.

원네이처는 화장품, 식품 원료 및 제품 제조공정, 전문 인력과 장비를 활용한 품질관리 교육 등을 중심으로 진로 체험을 진행할 예정이며, 무료 제공 프로그램은 진로체험지원 전산



원광대학교 학교기업 원네이처가 교육부 및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관하는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으로 선정됐다.

망을 통해 7월부터 확인하여 신청할 수 있다.

한편, 현장 실무형 인재양성에 앞장서고 있는 원광대 원네이처는 최근 '수피나 모이스처 브라이팅 마스크 팩'의 중국 위생허가 인증 취득 내용과 현장실습 및 제품개발 과정 등이

방송에 소개되기도 했으며, 참여학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17명의 하계 현장실습생을 선발해 하계 방학 중 6주 동안 실무교육을 진행하고, 금초지컬 샴푸·컨디셔너 제품도 곧 출시할 예정이다.

/익산=장양원 기자



군산대, 몽골에서 봉사활동 나서

에르덴·호탁운두리 지역에서 교육·노력봉사

군산대학교가 23일 교내 황동문관에서 '2017학년도 제9기 학생 해외봉사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27일부터 13박 14일 일정으로 해외봉사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발대식은 나의군 총장을 비롯하여 본부 주요 보좌자 및 직원, 학생 봉사단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제9기 학생해외봉사단 발대식은 박재성 학생대표(해양경찰학과 3학년)의 선서를 시작으로 각 팀별

교육프로그램 발표, 태권도, K-POP, 탈춤, 풍물놀이 시연 등으로 진행되었고, 그동안 학생들이 준비해온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최종 자체평가를 하였다.

심중표 단장(학생취업지원처 부처장)을 비롯한 해외봉사방문단은 27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13박 14일 일정으로 몽골 에르덴 및 호탁운두리지역 초등학교에서 교육 및 노력봉사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군산=장현 기자

융합섬유연구, 산단 클린운동 실시

ECO융합섬유연구원이 지난 24일 익산 제2산단환경 정비를 위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쳤다.

ECO융합섬유연구원의 '참사랑 봉사단'은 그동안 사회복지 시설을 방문하여 재능봉사 및 환경정비를 실시하였으며, 그 일환으로 산업단지 공단의 미관을 저해하고 악취를 유발하는 쓰레기를 제거하는 활동도 펼쳤다.

/익산=장양원 기자

군산시, 지방생활보장위 개최

군산시는 26일 군산시청 상황실에서 문동신 군산시장을 비롯한 15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진행했다.

이날 위원회는 문동신 시장을 위원장으로 사회단체·학교·기관대표자·관계공무원 등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15명의 위원들로 새롭게 구성되어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어서 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 해체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18세대 28명을 대상으로 심의를 통하여 기초생활수급 보장 및 보장비용 징수제외를 결정했으며,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산하 소위원회를 구성하며 전문적이고 신속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군산=장현 기자

군산 시간여행마을 무질서 바로잡는다

시, 불법주차·불법광고물·노상적치물 등 위법사항 계도·단속 추진

전국적인 관광지로 발돋움하고 있는 군산시가 관광도시로서의 명성을 확고히 하기 위해 군산시간여행마을 일원에 대한 기초질서 확립의 일환으로 대대적인 계도와 단속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시에서는 지난해부터 도시재생선도지역 주민협의체를 중심으로 관계공무원과 함께 수차례에 걸쳐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캠페인을 벌여왔으나 오히려 특정지역은 위법사항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군산을 찾는 관광객들의 불편은 물론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갈 수 있다

이 자리에서 김경근 국장은 "시간여행마을의 기초질서가 무너지고 있다는 지적이 연이어 나오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관계부서들이 주민협의체 등과 함께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계도활동

과 함께 필요하다면 강력 단속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책회의 결과에 따라 군산시는 교통행정과, 건축경관과, 건설과, 도시재생과, 유휴지 그리고 주민협의체와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참여해 7월부터 계도활동과 강력한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계도와 단속은 의례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기초질서가 확립될 때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전하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군산=장현 기자

익산시, 일상생활 속 물 절약 홍보 나서

익산시는 최근 기상악화로 가뭄이 장기화되면서 생활용수 부족이 우려됨에 따라 일상생활 속 물 절약 홍보에 나섰다.

상수도과는 가정 내에서 수도물 절약방법 12대 실천요령으로 ▲기존 변기수조에 절수기 설치 또는 물 재운병을 넣어 20% 절수 ▲변기 수조를 절수형으로 설치하여 50% 절수 ▲변

기 수조 수압조절, 누수여부 확인으로 물 아끼기 ▲설거지용 이용으로 60% 절수 ▲수도꼭지에 물 조리개를 부착하여 20% 절수 ▲수도꼭지에 절수기 설치로 20% 절수 ▲샤워시간 반으로 줄여 50% 절수 ▲샤워헤드를 절수형으로 바꿔 40% 절수 ▲양치질할 때 물컵 사용으로 70% 절수 ▲빨랫감을 한 번에 모아 빨아 30% 절수

▲세탁기는 알맞은 용량, 세탁기 수위는 알맞게 조절해 50% 절수 ▲헹굼은 적정횟수, 마지막 헹굼 물 재이용으로 50% 절수의 실천을 강조했다.

기업 실천수칙은 물을 많이 쓰는 곳에 물 재이용 시설을 설치 등을 해야 하며, 자세한 물 절약 실천내용은 익산시 홈페이지 시청홍보란에 게시되어 있다.

정현을 시장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절약실천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군산시, 폭염대비 독거노인 보호대책 추진

때 이른 무더위로 인한 독거노인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군산시는 6월부터 9월까지 폭염대비 독거노인 보호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에서는 폭염특보 발령상황을 신속히 전달할 수 있도록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방문건강관리사, 읍면동 사회복지업무담당자 등을 재난도우미로 지정하여 폭염에 대비하기 위한 정보 전달체계를 구축했으며, 폭염대비 보호대책의 일환으로 냉방시설을 갖춘 관내 경로당, 금용기관 등 464개소를 무더위 쉼터로 지정해 운영하고 노인

돌봄기본 생활관리사를 통하여 독거노인 1,530명에 대해 주 2회 이상 안부확인을 진행한다.

아울러 온열질환에 취약한 농촌 어르신들이 무더운 날씨에 농사일을 하며 더위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마을 방송 등을 통해 폭염발령상황 및 무더위 시간대(낮12시~오후5시)에 야외활동을 자제하도록 적극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오는 7~8월에는 경로당별 하절기 냉방비를 개소당 10만원씩 지원할 계획이다. /군산=장현 기자

군산우체국 365봉사단, 독거노인 가정 도배봉사

군산 우체국 365봉사단에서는 26일 단원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조촌동 관내 독거노인 가정을 방문하여 도배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 대상 가정은 도배를 한지 오래 돼 벽지가 녹누하고 습기로 인해 창문에는 곰팡이가 피는 등 생활환경 개선이 절실했던 상태로 봉사자들은 집안에 있던 생활용품 및 가구, 전자제품 등을 들어내고 얼룩진 도배지를 걷어내고 깨끗한 벽지로 교

체하는 작업을 진행했으며, 집 구석구석 얼룩진 곳의 청소도 병행했다.

군산우체국 이기찬 365봉사단 단장은 "수년전부터 자관리를 운영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어려운 가정 물품지원, 집안 환경 정비 등의 각종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다"며, "주민과 함께하는 우정 행정을 펼쳐 소외된 이웃들이 더이상 외롭지 않고 행복해지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산=장현 기자

우리동네 무인주차장 어디에 있을까?

주차하고 구경하고
무인주차장에 주차하면
시간도 절약되고 편리합니다.



[전주시 무인주차장 안내]

- 서부신시가지 도청역**
전주시 완산구 흥산북로 75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노송천 주차장**
전주시 노송여울2길 108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덕진광장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덕진광장로 3 (239-2562)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서부신시가지 농협중앙회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북로 53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서부신시가지 다은병원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2길 5-12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서부신시가지 KB은행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1길 4-13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실내체육관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권삼덕로 308 (251-1264)
(연중무휴) 4,000원 기본(30분):500원, 추가(15분):250원

